

The background of the slide is a night landscape. The sky is dark blue and black, filled with numerous stars and a faint, glowing band of the Milky Way galaxy. Below the sky, there are dark, silhouetted mountains and rocky terrain. The overall scene is serene and majestic.

필리핀 팡가시난팀 12월 보고서



홈스테이

Pang-good

개인 에세이

A night sky with the Milky Way galaxy visible, arching across the frame. The sky is filled with stars and nebulae in shades of blue, purple, and yellow. In the foreground, the dark silhouette of a mountain range is visible against the bright sky.

홈스테이

홈스테이

홈스테이에 들어가다.

12월 21일 홈스테이에 들어왔다.

우리가 들어온 지역은 산타크루즈라는 지역으로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농촌이다.

아름답고 조용한 지역으로 첫 인상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많은 동물들이 길에 다니고 홈스테이 가족분들을 비롯하여 이웃 주민들 모두 반겨 주셨다.



홈스테이

Lucas의 홈스테이

마을 꼭대기에 있는 집에 홈스테이를 들어왔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주변 풍경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홈스테이 가족분들이 환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다.

필리핀에서 본 장소 중에 가장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과거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온 느낌이다.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걸 좋아하지않는 나에게 조용한 장소는 굉장히 소중하다.



내가 지냈던 방

따로 떨어져 있는 공간을 내게 내주셨다.
혼자 사용하기 큰 공간이라 놀랐다.
조용하게 혼자서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굉장히 좋았다.

홈스테이

Lucas의 홈스테이



우리 집의 Tatay
예전에 살아 계실 적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잘 웃으셔서 좋다. 호탕하고 멋있으시다.
항상 과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
다.

우리 집의 Nanay
항상 먹을 것을 챙겨 주신다. 많이 먹지 않는
내가 걱정스러우신 듯 하다.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많이 써 주신다.
음식을 굉장히 잘 하신다. 전 기수들이 왜 살
이 찌서 가는 지 알 것 같다.

홈스테이

Lucas의 홈스테이



우리 집의 개구쟁이 CJ
항상 잘 웃고 밝게 뛰어다닌다. 장난도 같이 많이
치고 활발하다.
어린 남동생이 있으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

매일 오후 농구하고 NBA를 같이 봤다.

우리 집의 병아리
낮도 가리지 않고 잘 웃는다.
어리지만 취향이 확고해서 밥 먹을 때 Ayoko를 연발한다.
굉장히 귀엽다.



홈스테이

Lucas의 홈스테이



크리스마스를 여기서 맞이하게 되었다.
동네 성당에 모여 잔치를 했는데 시골 잔
치 느낌을 받았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온 선물과
먹을거리들을 나누며 놀았다.
즐거워 보이는 풍경이다.



소박하고 단란한 느낌이 좋았다.
성당에 가면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나
서 좋다. 보고싶다.

홈스테이

Lucas의 홈스테이



더운 여름날 새해를 맞이했다.

12월 31일 저녁부터 CJ와 폭죽을 터트리
고 불을 피우며 새해를 기다렸다.

즐거워 보이는 표정이 보기 좋았다.



12월 31일 12시가 지나 새해가 되었고 맛
있는 음식들을 같이 먹으며 새해의 행운을
빌었다.

새해에는 내가 이뤄내고 싶은 것을 이뤄내
고 싶다.

홈스테이

Lucas의 홈스테이



이런 다른 환경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별반 다른 느낌은 없었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간다.

새해가 되었고 한 살 더 먹어간다는 느낌이 마냥 좋지는 않았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어른이 된다는 게 좀 무섭기도 하다.

끝이라는 것은 항상 아쉽고 새로운 것은 매사 두렵다.

홈스테이

Dencio의 홈스테이



나나이에게 따뜻함과 감사함을 배우고 타타이와 꾸야들에게 유쾌함과 책임감을 배웠다. 가끔 무서울 정도로 행복하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꾸야 레이몬의 부인인 아페 비아가 홍콩에 갈 땐 서로 눈물을 보이며 뜨거운 가족애를 보여주는 동시에 나 또한 느낄 수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손으로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일상이 이제는 내게 너무도 당연해져버린 행복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기대된다. 매일 일기장을 넘기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날 부르는 'Dencio' 라는 이름이 좋아져 버렸다.

홈스테이

Rosita의 홈스테이



우리 집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집이다.
마을 중앙에 있어서 매번 모임장소가 된다.
다른 팀원들 집을 방문하기에는 중앙이라
놀러가기에 힘들지는 않지만
홈스테이 기간 동안 나의 역할은 집순이였다.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공간이었다.



집이 가까워지면 두 마리의 강아지들이 지저댄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반갑다.
내가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소리가 작아진다.

이제는 내가 이 집에 산다는 것을 아는 것 같다.

홈스테이

Rosita의 홈스테이



우리 집 Tatay는
BRGY Captain입니다.

매번 날 보면 “Rosita cute”
라고 하시면서 흐뭇하게
지나가신다.

딸 부자 집 아버지이신 만큼
매우 다정한 분이시다.



우리 집 Nanay는
매우 다정하시고 웃는 모습
이 가장 예쁘시다.

항상 나에게 “maganda”라
고 해주신다.

음식솜씨가 좋으셔서 맛있는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었다.



우리 집 막내 Layca는
위에 남매들과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완전 막내다.

여전히 수줍은 소녀지만 가끔
화끈한 성격이 보인다.

아빠밖에 모르는 아빠 바보
이기도 하다.

홈스테이

Rosita의 홈스테이



우리 집 큰 Ate Cherie는 산타크루즈 초등학교 선생님 이시다.

이곳저곳에서 나를 항상 챙겨 주시는 분이시다.

서로 웃으면서 장난 칠 때 진짜 친 언니 같은 기분이다.



우리 집 작은언니 Ate Lhyn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다.

도도하면서도 포스 있는 언니지만 웃는 모습이 예쁘다.

매일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룸메이트 언니이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한국 가족, 친척 대부분이 남자이기 때문에 매번 언니들, 여동생들과 친해지는 것을 힘들어했었다. 오히려 오빠들이 편했고 남동생이 훨씬 편했었다.

내 주변에 친한 언니, 여동생들은 매우 적었다. 그만큼 다가가는 방법도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우 서툴렀다.

그러나, 홈스테이 기간 동안 두명의 언니들과 살면서 너무 행복했다.

친한 언니가 생긴 기분이 아닌 친언니가 생긴 기분이다.

그동안 여자형제가 없어도 괜찮았다.

한국 돌아가면 Ate들이 보고 싶어질 것 같다. 언제나 찡찡댈 수 있는 언니의 존재가...

홈스테이

Rosita의 홈스테이

매주 일요일 우리 집은 교회를 간다.

우연하게도 이번 달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와 1월 1일이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꼽히는 두 날을 교회에서 보내게 되었다.

평소에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아침 일찍부터 출발하기에 교회를 다녀오는 일은 매우 힘들 일이다.

처음에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 해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처음으로 거부감을 느낄 정도였다.

계속 방문하다 보니 매번 오해하던 행동들이 지금은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큰 교회도 아닌 작은 동네 교회같이 생겼다.

어른들 보다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청년들이 대부분이라서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홈스테이

Rosita의 홈스테이



대부분을 난 우리 막내 Lyca랑 시간을 보냈다.

잉여처럼 집에 있는 나를 날씨가 선선 해지는 저녁때 즈이면 우리 막내가 나가자고 말을 건다.

이때 만큼은 Ate Rosita라고 부르며 다가온다. 아침에 보였던 부끄러움은 보이지 않는다.

피곤할 때도 있지만 이 시간은 나에게 가장 값진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 나간다.

어렸을 때 빈 공터에서 잘 놀았던 것처럼 게임을 만들어가면서 신나게 보내다 보면 금방 어둠이 찾아온다. 땀을 뻘뻘 흘리고 막내와 손을 잡고 별을 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 좋다.

홈스테이

Rosita의 홈스테이



하늘 사진을 매일 찍었다.

매일 달라지는 하늘 색이 너무 예뻐다.

쏟아질 것 같은 별과 크고 밝게 보이는 달이 카메라에 잘 안 담기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사진을 안 찍어도 멍하니 해지고 별이 뜨고 달이 뜨는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다.

A night sky photograph featuring the Milky Way galaxy stretching across the frame. The sky is a deep blue and purple, filled with numerous stars. In the foreground, dark, silhouetted mountain peaks are visible against the starry background. The text 'Pang-Good' is centered in the upper half of the image, enclosed in a dashed white rectangular box.

Pang-Good

Pang - Good

Pang - Good의 시작

12월 4일 아침에 Pang - Good 친구들을 만났다.

어린 친구들이 시간과 마음을 써서 먼 타국까지 온 것이 대견하고 신기했다.

이번 캠프가 3회 차인데 3명의 친구들이 3번 모두 참여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12월 4일 저녁에 환영파티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밝고 쾌활한 분위기에서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Pang - Good

산타 크루즈로 들어오다.



12월 5일 오후에 산타크루즈로 돌아왔다.

마을 입구에 있는 학교에서 하루를 보냈다.
캠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12월 6일 활동을 시작하였다.

큰 활동 2개는 길이 미끄러운 논두렁 근처
에 징검다리를 만드는 것과 윗 마을 물 펌
프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다.

Pang - Good

주 활동 - 징검다리 설치

아래 마을 논두렁 쪽 길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자주 넘어진다. 특히 우기 때는 굉장히 다니기 힘들다.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징검다리 설치를 시작했다.

Pang-Good 친구들과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진행해 나갔다.

더운 날씨 속에 힘든 작업이 이어졌지만 밝은 분위기 속에 서로 협동하며 이어 나갔다.



Pang - Good

주 활동 - 물 펌프 설치

산타 크루즈는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상대적으로 귀하다.

펌프에서 물을 많이 길어서 사용하는데 펌프가 먼 가정들을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거리를 왕복해야 한다.

그래서 윗 마을에 펌프를 하나 더 설치하기 시작했다.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땅을 파야 하는 기약 없는 작업이지만 서로 도와가며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Pang - Good

Pang - Good의 산타크루즈 생활



마을 입구에 있는 학교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노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밝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마을 어귀에 있는 강가에서 같이 놀았다.
마을 어귀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Pang - Good

Pang - Good의 산타크루즈 생활



Korean Food Festival을 진행했다.

장장 4시간 정도에 걸쳐 한국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했다.

준비 및 조리시간이 길어서 힘들었지만 많은 마을 주민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뜻 깊은 자리였다.

불편한 공간과 부족한 재료와 조리 도구에도 불구하고 합심하여 서로 도와 주어서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대화를 통해 서로 일을 분배하고 다른 팀일지라도 도우며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다.

Pang - Good

Pang - Good의 산타크루즈 생활



산타 크루즈의 마지막 저녁에 송별회를 진행하였다. 송별회에는 많은 주민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되었다.

서로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지만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밝은 분위기였다. 비록 프로젝트를 끝내지는 못하였지만 서로 그간의 고생을 치하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Pang - Good

덤프 사이트 방문



덤프사이트에 마지막 인사차 들렸다.

시간이 지나도 덤프사이트에서 활동했던 날들은 여전했다.
여전히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과 기억들 때문에 감상에 젖어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많은 미련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하는 현실이 탐탁치 않았다.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에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안겨준 장소이기에 항상 아쉽다.

Pang - Good

Pang - Good의 캠프 마무리



안다라는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그간의 고생들을 서로 대견하게 여기며
노고를 풀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로를 다독이며 친분을 더욱 도모하는
시간들이었다.



팡가시난 YMCA에서 마지막 송별회를 진
행했다.
만남의 끝을 아쉬워하고 다음 만남을 기
약하며 캠프가 무사히 끝났음을 축하했
다.

개인 에세이

개인 에세이

Lucas

어느새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달 역시 굉장히 정신없이 흘러갔다. 그 간들의 시간들이 마냥 헛되지는 않은 모양인지 많은 생각들을 지워 나가고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

홈스테이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 생면부지의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근 한달이라는 시간을 받아 주신 다는 것이 놀라웠다.

필리핀의 평범한 가정은 한국과 다르지만 같았다. 구체적인 문화 또는 생활 양식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마음은 같았다.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생활이었다.

지금까지의 라온아띠 생활 중 가장 좋은 나날의 연속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뜻과 생각은 통한다는 것이 좋았다.

우린 결국 다르다. 같아 질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것은 외적인 부분에서 그치고 내적인 부분인 마음은 통한다. 사람사는 건 다르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해 수렴한다.

생면부지의 우리를 아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는 나 때문에 죄송했다. 각자 복잡한 사연을 가진 다른 사람들끼리 조건없이 아낀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개인 에세이

Amelia

엣그제 한국에는 많은 눈이 왔다. 내 방에서 보는 바깥 풍경은 몇 년 전 보았던 겨울왕국과 같았다. 우리에게 당연한 겨울은, 필리핀 친구들에게 당연하지 않았다. 눈을 보고 느껴보고 싶다는 친구들의 말이 생각났다. 필리핀과 다른 한국을 이야기 하면서 보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참 많은 것을 공유하고 느끼고 있었구나 싶었다. 내 기억 속에 추억이 이렇게 스며든 걸 보면 참 귀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었다. 그렇게 매번 한국에 오고 이렇게 순간순간이 그리움 투성이었다.

문득 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들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해도 외롭지 않아서 괜찮았다. 여름방학의 추억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던 별꽃반 아이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간사님들과 언제나 묵묵히 힘이 되어 주던 가족들 그리고 처음에도 넷이었으니 끝날 때도 넷이라는 고마운 라바! ‘내 편’의 의미가 더욱 더 마음 속 깊이 와 닿는 날이었다.

요새 훌쩍 큰 별꽃반 친구들과 또 다른 추억을 열심히 쌓고 있다. 집에 가지 말라고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하는 모습, 여름방학 때 함께했던 물총놀이를 잊지 못해서 무용담 마냥 재미있게 얘기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왜 그렇게 고마운지 모르겠다. 필리핀의 따뜻한 날씨와 닮지는 않았지만, 추위도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이곳에서 아이들과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야지!

개인 에세이

Dencio

에헤라디아~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하루가 기대된다. 어떤 일들이 오늘도 나와 놀아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배울지. 손으로 밥을 먹고 음악이 들리지 않아도 흥에 겨워 춤을 춘다. 행복하다 그동안 들고있던 무거웠던 것들을 내려놓고 보니 굳이 필요하지 않고 쓸모가 없었다. 매일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전처럼 조급하거나 불안하지는 않다. 하지만 가끔 흔들릴 때마다 머리를 묶고 수염을 다듬으며 매번 나를 응원한다. 그리고 함께 지내는 가족들이 날 매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타타이(아버지)와 꾸야(형)들은 유쾌함을 나나이(어머니)에게 따뜻한 온기를 받는다. 그리고 이번달은 안양과 창원y에서 빵긔 3기 캠퍼들이(중, 고등학생) 와서 나에게 많은 힘을주었다. 그리고 많이 배웠다. 정말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언제봐도 예쁘다. 이번 달에 크게 하나 느낀것은 내가 만남과 헤어짐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의 폭이 좁아졌다는 걸 느꼈다. 만남의 설레임이 작아진 것인지 헤어질 때 슬픔이 무감각해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눈물을 참을 수 있게는 된 것 같다. 이로인해 좀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되었다. 그리고 전에 좋지 않았던 관계들을 지금은 내가 아는 사람들의 범위 안에서 거의 완벽하게 대화로 해결하였다. 나의 부정적인 확신이 깨져버린 것에 대하여 기뻐다. 라온아띠 면접때 현지 친구들과 함께 드러눕고 싶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요즘 하고있다.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정말 다행이다. 어려울 수 도 있는 일이지만,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큰 확신이 생겼다. 또 생각이 많아지기 전에 재밌게놀자. 시간이 별로 없다. 친구들아 모여라.

개인 에세이

Rosita

12월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9월 부터 지겹게 들었던 크리스마스, 언제 오나 했던 2017, 마지막 비자 연장 등. 모든 것이 벌써 지나갔다. 이제는 한달도 아닌 몇 주 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다.

홈스테이 기간 동안 참 한국 가족이 그리워졌다. 가족 품을 잊고 있다가 가족 품에 들어가니 한국 가족이 너무나도 그리워졌다. 가족 품 생각이 안 날줄 알았는데 더 생각났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마다 필리핀 가족은 날 친 동생처럼 친 딸 처럼 챙겨 주셨다. 진짜 홈스테이 동안 받기만 했다. 아무런 도움 되지 않는 날 항상 예뻐 해주고 챙겨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했다. 아마 한국가면 역으로 필리핀 가족이 그리울 것 같다. 빵긋을 하면서 오히려 홈스테이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느꼈다. 가족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 막내와 마일린 친구가 항상 일이 끝날 때 까지 학교에서 기다려 준다. 같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처럼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동네 아이들이 “Ate Rosita”라고 불러주는 목소리, 날 항상 딸 처럼 안아 주시는 마일린 어머니, 나의 lover 마이마이, 우리 홈스테이 가족들. 산타크루즈에 만난 사람 모두 잊지 못 할 것 같다.

빵긋을 하면서 많은 동생들이 생긴 기분이다. 많이 지쳐 있는 나를 항상 이해해주고 오히려 더 챙겨 준 예쁜 아이들 사랑스럽다. 덕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빵긋이 끝나면 한국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떴었다. 정작 빵긋이 끝나니 먹먹하다. 빵긋 활동 기간 중에 참 많은 헤어짐을 봤다. 그것이 나의 미래라는 생각에 먹먹하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은 안다. 영원한 헤어짐은 없다. 그러나 먹먹하다. 지금은 이 먹먹함에 젖어 들어보고 싶다. 힘들지만 익숙했던 사람들, 하루를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를... 먹먹하지만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기에 웃으면서😊

A night sky with the Milky Way galaxy visible as a bright, colorful band of stars and dust. The sky is dark blue and black, filled with numerous stars. In the foreground, the dark, silhouetted peaks of mountains are visible against the starry background. The text "Salamat po" is centered in the upper half of the image, enclosed in a dashed white rectangular box.

Salamat po